

# ‘광주 교육의 뿌리’ 근현대사 집약한 기록물 공유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시교육청에 400권 기증 노경수 이사장 “미래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광주 교육의 근현대사를 조사·연구와 기록물 도서를 교육청에 기증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광주 교육의 근현대사를 집약한 기록물인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 400권을 광주 시교육청에 기증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증한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는 학교라는 공간을 매개로 광주 교육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일상의 기억을 입체적으로 복원한 첫 종합 기록물이다. 학교의 풍경과 교실에서의 배움, 광주 학교 건축의 형성과 변천,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교사들의 삶, 수업을 알리던 종소리의 변화, 교복·교가·교표 등 학교 상징을 통해 근대 광주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학교의 일상 속에서 풀어낸다.

이번 기증은 교실과 운동장에 켜켜이 쌓인 시간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광주 교육의 뿌리를 전함으로써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세대의 기억을 잇는 공공의 자산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경수 이사장은 “학생들이 학교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교육 현장과 공유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식에는 노경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류영국 연구소장, 임선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등 광주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년간 조사·연구와 기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광주 근대 산업의 여명’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정체감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광주 교육의 근현대사를 집약한 기록물인 ‘근대 광주 학교이야기’ 400권을 광주 시교육청에 기증하는 기탁식을 진행했다.

## 박동철 목포대 교수, 호주 멜버른서 한국검도 알리다

### ‘도덕경’ 특별강사 초청 특강 “학술연구로 협력·연대 강화”

박동철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최근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열린 빅토리아주 검도연맹 주최 검도 세미나에 특별 강사로 초청돼 이론과 실기 지도를 통해 한국 검도의 우수성을 알렸다.

박 교수는 세미나에서 ‘반자도자동, 약자도자용(노자, 도덕경 40장)의 원리 체득’을 주제로, 노자의 도덕경에 담긴 원리를 검도의 동작과 접목해 설명했다.

약한 사람도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해 반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양 철학 기반의 운동 원리를 중심으로 기술 운용의 방향성과 극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의 강연은 기본 이론 설명과 함께 실습지도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공격과 방어의 순간마다 돌아오는 힘의 활용법을 직접 익혔다. 10여



박동철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최근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열린 검도 세미나에 특별 강사로 초청돼 이론과 실기 지도를 통해 한국 검도의 우수성을 알렸다.

년간 유럽 전역에서 한국 검도의 우수성을 전파한 박 교수는 이 같은 공로로, 헝가리 검도 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계 무도올림픽 검도 8단

부에 출전해 세계적 선수를 상대로 완승하며 한국 검도의 기량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또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제13·15·16회 세계대회에서 국제심판, 2018년 제17회 대회에서는 심판추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이어왔다.

박동철 교수는 “검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라는 검도계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과 연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김춘식 동신대 교수, 교육발전 기여 나주시장 표창

### 국제교육도시 발돋움 앞장

김춘식 동신대학교 에너지경영학과 교수(사진)가 지역 교육 발전과 전남 K-에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나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나주교육비행TF 위원으로, 나주 교육의 미래 10년 설계에 참여했다. 나주교육지원청 국제교육교류 추진위원으로서 나주시 미래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했다.

특히 인공지능시대의 인간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독일연방정부와 아헨공대가 주관하는 갈만 해외 석학 활동을 수행하며 나주 교육발전특구의 국제협력 기반을 확충하고, 독일 교사 및 교육연구자와 나주의 교육교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나주시가 국제교육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R&E ‘글로벌 창의융합 발표토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과 독서인문 기반 창의융합 발표토론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특구 연구와 전남 교육 행정 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으로 K-에듀 전남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혁신을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독일사학회 제19대 회장으로서 한독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전남 인재육성교육정책자문위원·도정평가위원·국제교육자문관 등으로 활동하며 전남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국제화에 기여해 왔다.

김춘식 교수는 “뜻깊은 상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미래 교육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에듀 전남 모델을 고도화하고, 해외 교육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기반 교육 모델이 국제적 교육 모델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영암군-남도풍경연구소, 사진 콘텐츠로 지역 대표 관광 홍보

### ‘2027·2028 영암방문의해’ 시동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남도풍경연구소는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3일 남도풍경연구소에 따르면 20일 영암군청에서 ‘2027·2028 영암방문의해’ 성공 개최 관광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월출산국립공원, 왕인박사유적지, 영암호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체계적 사진 콘텐츠로 기록·확산해 영암방문의해를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도풍경연구소는 8000여 회원을 기반으로 20년 지역 풍경 정보를 실시간 제공



남도풍경연구소는 최근 영암군청에서 ‘2027·2028 영암방문의해’ 성공 개최 관광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하는 단체로 전국 30만 사진가·여행가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연구소 회원들은 영암군이 공식적인 초청을 통한 행사에 참여시 주요 관광지, 축제 현장을 전문 촬영해 영암군에 무상 제공하고, 사진전 개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도 병행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협약은 2027년 2028년 영암방문의해를 전국에 알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영암의 자연과 문화, 사람,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남도

풍경연구소의 콘텐츠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최근영남도풍경연구소 소장 등이 함께 해 영암방문의해 성공을 다졌다.

고관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화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상위 10% ‘가등급’ 선정...“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화순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 유형,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평가 등급이 부여됐다.

군은 대내적으로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청년과의 토크 콘서트’, ‘군민과 소통하는 사랑방 좌담회’, ‘군수에게 바란다’ 등

은·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해 군민 중심 민원행정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찾아가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원스톱 방문 민원처리제 운영’, ‘다문화가족 등?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신속한 대응 체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평가 분야와 체계적인 민원제도 운영,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이명환 화순군 행정민원과장은 “3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여수시-여수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협약 체결 피해 주민에 설계·감리비 등 행정 지원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피해 주민 안내·행정절차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제공, 신속 대상 주민 설계·감리비 50% 감면, 추진 상황 점검·협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속해야 하는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최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속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